



제120주년  
人日기념

포덕 158(2017)년 12월 24일



천도교중앙총부

제120주년

# 人日기념



포덕 158년 12월 24일

 천도교중앙총부

##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 제30장 인일기념가	14
인여물개벽설	16
의암성사 약전	18

#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인어물개벽설(666면)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포상

1. 천덕송 합창\_ 제30장 인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 [인일기념 축하행사 안내]

- 연합합창단 축하공연(인일기념식전 10시 30분 / 중앙대교당)
- 서울교구합창단 축하공연(인일기념식후 11시 50분 / 중앙대교당)
- 제2회 청소년 인내천 콘서트(오후 1시 30분 / 중앙대교당)
- 천도교 세계화전략 학술발표회(오후 3시 / 수운회관 907호)

# 기 념 사

---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해월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신 지 제120주년이 되는 인일기념일입니다. 의암성사께서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신 포덕38(1897)년 12월 24일은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지 겨우 3년이 지난 때로, 일반도인들 개개인은 물론이요, 우리 도의 운명조차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해월신사와 의암성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키고, 어둠을 빛으로, 위기를 기회로, 쇠운을 성운으로 전환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의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인일기념일을 맞으며 스승님들의 거룩한 뜻과 순도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천덕사은에 보답하기로

맹세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롭게  
다듬어 보국안민 포덕광제와 후천개벽의 길로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포덕2(1861)년 4월 8일 충북 청주  
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정의감 넘치는 의기남아로 성  
장하셨습니다. 가슴 속에 큰 뜻을 품고 살아가던 중 마  
침내 보국안민의 큰 이상을 제시하는 동학을 만나 동학  
에 입도한 후로는 절차탁마하는 수련을 거듭하셨습니  
다. 그렇게 3년간의 공부를 마친 후에 이윽고 해월신사  
를 한번 뵈 뒤로는 오직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법으로 삼고, 한울님과 스승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류의 스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시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북점통령으로 반봉건  
반외세의 전선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셨고, 그로부

터 3년 후 동학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신 이후에는 바람 앞의 등불 같은 무극대도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시고 한반도 곳곳은 물론 중국 땅, 일본 땅을 오가며 세계정세를 살피시고 정진을 거듭한 끝에 포덕 46(1905)년에는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함으로써 현도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통치 하에서 고통을 받으신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의 3대원칙 속에서 세계사에 길이 빛날 3·1운동을 성공적으로 지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교단 내적으로 근대 문명화의 기틀을 다지고, 인재를 육성하고 영입하며, 교육 문화사업과 언론출판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니만큼, 참으로 의암성사의 영도력은 탁월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교단으로서도 100년 중일변의 대 변화를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의암성사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그리고 의암성사의 현도정신을 계승한 인내천운동연합 등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교단과 국가적 과제를 온몸으로 지고 나가는 중요한 기관이자, 스승님의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이 시대의 전위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의암성사의 현도 이후 대포덕 시대와 신문화운동 당시에 그러하였듯이 대도중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20주년 인일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의암성사로부터 비롯된 다양하고 자랑스러운 천도사업의 성과를 기념하면서, 그 모든 성취들이 의암성사의 독공(篤工)과 정성(精誠)으로부터 가능하였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인적, 물적 형편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많은 과업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감내해 내기에는 여간한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암성사께서 “무릇 안락의 말은 듣기에는 비록 좋으나 실은 안락이 아니라 도리어 험고하고, 험고의 말은 듣기에는 비록 싫으나 실은 험고가 아니라 곧 안락이라” 하시고, 이어서 “수련이 극치에 이른 사람이라야 험고로써 안락하여 육신의 안락은 홀연히 잊어버리게 된다” 하셨으니, 수련의 정성과 공력으로 험고를 이겨냄으

로써, 우리 도의 쇠운을 성운으로 전환시키는 인사(人事)를 닦아 나가야겠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현도기념일과 인일기념일 그리고 도일기념일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다른 한편으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고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참회 반성하여 개선책을 찾아내려 노력하며, 새해 1년 동안 정진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의암성사의 가르침 중에서 정신의 개혁은 높은 체하는 마음,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 아득하고 망령된 생각을 개혁하는 데 있으며 그 요체가 바로 모실 시, 정할 정, 알 지, 세 글자에 있다고 하셨으니, 새해에는 의암성사께서 정신개혁의 요체로 재정의하여

주신 대로 시정지(侍定知)를 우리들의 화두로 삼아 대도 중흥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의 동포 여러분! 오늘은 의암 손병희 성사께서 천도교 3세 교조가 되신 인일기념일입니다. 의암성사의 거룩한 정신과 깊고 넓은 진리를 계승하고 배우며 또 익혀서 3·1운동의 재현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 3·1정신의 계승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의 신시대를 개척하고, 인내천정신을 선양함으로써 생명평화의 신문명을 창출하는 길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오늘은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도 한자리에 하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 모두가 이날의 의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위대한 역사는 이미 120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다시 내일로 면면히 이어져 갈 것으로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삼전론에서 “방금 세계 문명은 실로 천지가 한 번 크게 변하는 첫 운수라. 먼저 깨닫는 그 곳에는 반드시 한울님의 돌보시는 기운이 응하리니, 부디 생각하여 천지가 감동하는 정신을 어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암성사께서 승통하신 인일기념일을 다함께 축하하며, 의암성사께서 예견하고 당부하신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대도중흥과 포덕광제를 하루속히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58(2017)년 12월 24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심고

## 제13장 기 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지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지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 제30장 인일기념가

오 늘 인 일 기 념 의 날 인 일 - 기 념 의 날

천 도 승 통 의 사 - 명 성 사 에 게 내 리 시 니

아 동 방 하 늘 영 롱 히 개 이 어 후 - 천 - 개 벽 에

현 - 도 의 이 아 침 이 르 도 다

창생들아 다같이 이 - 날 을 즐 기 세 성 사 의

높 으 신 덕 길 이 빛 날 이 아 침



## 人與物開關說(인여물개벽설)

개벽이란 한울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 두 조각으로 나뉘임을 의미함인가.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함이니, 천지 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써 하고 인생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이니라.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그러나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알 지 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천하 일만 생각이 전혀 한 몸에 있으니, 앞의 물결이 겨우 쉬면 뒤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 생각이 어느 때에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끊으려고 불가능의 심력을 공연히 허비치 말고, 다만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굴신동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가」하는 생각을 일마다 생각하여 오래도록 습성을 지니면, 성품과 몸 두 가지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 것과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

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 이 깨달음이 곧 육신을 개혁하는 것이니라.

이 생각을 한번 개혁하면, 이에 희고 흰 얼음과 눈의 깨끗함과 한울이 개이고 날이 밝은 광명과 산이 높고 물의 흐름이 방정함과 뜻이 크고 뛰어난 운학의 고상한 그것이 곧 참된 정신의 나이니, 이 나는 한울이 기울어지고 땅이 터지더라도 길이 이와 같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미웁하고 미웁한 세계를 돌아보고 개혁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우리 대신사를 보라. 이러한 사람이 아니신가.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일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 앞에 닥쳤도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 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마는 하루밤 지나면 산에 가득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맞은 잎 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혁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혁하는 때이니라.

## 의암성사 약전(略傳)

의암성사(義菴聖師)의 이름은 손병희(孫秉熙)이다. 의암성사는 포덕 2(1861)년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나시어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새로운 세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도라는 말을 듣고는 포덕 23(1882)년에 입도하셨다. 입도 이후 의암성사는 호방했던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주문 21자를 매일 3만 독(讀)씩 읽고 외우며 지극한 수련에 임하셨다. 또 주문을 읽는 틈틈이 매일 짚신을 두 켤레씩을 삼아 5일마다 열리는 청주장에 나가 팔아 호구지책을 삼았다. 이와 같은 생활을 3년간이나 계속하며 도의 기본을 이룬 이후에는 해월신사를 모시고 공주 가섭사(伽葉寺), 익산 사자암(獅子庵), 풍천 용문사 등에서 독공(篤工) 수련을 계속하시었다. 이러한 지극한 종교적인 수행은 평생에 걸친 의암성사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학혁명 당시 의암성사는 동학군의 통령(統領)으로 진두지휘를 하며 전봉준과 함께 공주 우금치전투 등에서 큰 활약하시었다. 이후 해월신사를 모시고 관의 추적을 피해 원주, 여주 등지를 전전하시던 중 37세가 되던 포덕 38(1897)년 12월 24일 해월신사로부터 도통(道統)을 전수받고 천도교의 3세 교조가 되시었다.

종통을 이어받은 의암성사는 교단을 재수습하는 한편 세계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지사(志士)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또 교인 수습책을 강구하셨다. 이때에 의암성사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교인 청년 중 우수한 인재를 뽑아 일본에 유학을 시키는 등 꾸준하게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 포덕 45(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할 기미가 보이자 진보회(進步會)를 조직, 교인들을 규합하는 한편, 이해 8월에 전국의 동학 도인으로 하여금 일제히 머리를 깎고 옷을 간편하게 하는(斷髮黑衣) 등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기우는 국운(國運)을 혁신하고자 갑진 개혁과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셨다.

마침내 포덕 46(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온 천하에 선포하셨다. 이로써 동학은 은도(隱道) 시대를 벗어나 현도(顯道) 시대를 맞이하였다. 의암성사는 포덕 47(1906)년 1월 귀국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또 각 군에 교구를 설치하여 근대적 종교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출발을 전개하셨다.

포덕 51(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나라는 식민지시기에 들어선다. 의암성사는 우이동에 봉황각(鳳凰閣)을 짓고 전국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일곱 번에 걸쳐 이신환성(以身換性)의 법설과 함께 49일 수련을 실시하여 신앙통일, 규모일치를 강조하셨다. 이러한 수련은 곧 정신력의 단결과 조직의 강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뒷날 일어나게 되는 3·1 독립운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

었다. 이처럼 의암성사는 이미 10년 가까운 기간을 3·1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준비를 하셨다. 그리하여 포덕 60(1919)년 1월 5일을 기해 전국 교인들에게 일제히 49일 특별기도를 명하여 3·1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정신무장을 시킨 후 3월 1일 거족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다.

3·1 독립운동 이후 일제에 의하여 구금된 의암성사는 옥중에서 고문으로 병환을 얻게 되어 이후 병보석으로 출감하였으나 그 병세가 악화되어 포덕 63(1922)년 상춘원(常春園)에서 환원(還元)하셨다. 수운대신사, 해월신사와 마찬가지로 의암성사 역시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을 위하여 혼신의 정성과 힘을 다하다가 장엄하게 순도(殉道)하신 것이다. 향년 62세이셨다.

의암성사께서는 <무체법경><후경>(1,2)<십삼관법><각세진경><명심장><천도태원경> <대종정의><수수명실록><명리전><삼전론><이신환성설>(1, 2)<성령출세설><법문> <무하설><인여물개벽설><입진경><우후청산><아지정신><삼화일목><권도문><강론경의><위생보호장><천도교와 신종교><신앙통일과 규모일치><원자분자설><몽중문답가><무하사><강서><시문><기타시문><기타> 등의 법설을 남기셨다.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mailto: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